

부문별 세계 일류 현황과 시사점 연구

김 종 권 *

Ⅰ 서론: 세계 일류의 중요성

국내 기업들은 노사분규 및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기업들은 내수위축, 정부규제 등과 같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2000년대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류 기업들은 우월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불황 속에서 더욱 강점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이에 걸맞는 정부의 역할 등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성장엔진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자유로운 투자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도약과 세계일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수익성 증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매출액을 높여야 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주체로서의 개인 창조력을 높여야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사회 각 부문의 '세계 일류'가 가능할 것이다.

Ⅲ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력 및 국가경쟁력 현황

80년 이후 최근까지의 GDP와 수출, 수입규모의 추세를 볼 때, 경제력 신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표 1>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80년 대비 90년 129.1%로 급성장하였다. 90년 대비 2000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81.7%로 다소 둔화된 가운데 급성장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90년 대비 2002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99.2%를 기록하고 있다. <표 2>는 80년 이후 수출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총생산 증가와 더불어 폭발적인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신홍대학 경상정보계열 교수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은 80년 대비 90년 들어 271.4%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90년 대비 2000년에는 165%를 기록하는 괄목상대한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90년 대비 2003년(1~11월)의 수출증가율은 168.3%를 나타내었다. 한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력 신장과 수출증가와 맞물려 수입도 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증가율은 80년 대비 90년 들어 213.3%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수입증가세도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90년 대비 2000년에는 129.8%, 2003년(1~11월)은 130.7% 급증 추세는 지속되었다.

<표 1> 국내총생산(실질, GDP) 현황 및 변화추이 (단위 : 10억원, %)

연 도	국내총생산	증가율
1980	114,977.7	-
1990	263,430.4	129.1
2000	478,532.9	81.7
2002	524,689.4	99.2

주 : 2002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990년 대비임

자료 : 한국은행

<표 2> 한국의 수출 현황 및 변화추이 (단위 : 천 달러, %)

연 도	수출액	증가율
1980	17,504,862	-
1990	65,015,731	271.4
2000	172,267,510	165.0
2003(1~11월)	174,408,000	168.3

주 : 2003년(1~11월) 수출 증가율은 1990년 대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3> 한국의 수입 현황 및 변화추이 (단위 : 천 달러, %)

연 도	수입액	증가율
1980	22,291,663	-
1990	69,843,678	213.3
2000	160,481,018	129.8
2003(1~11월)	161,136,352	130.7

주 : 2003년(1~11월) 수입 증가율은 1990년 대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3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15위로 평가돼 전년도 기준으로 5단계 하락하였다.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3년 5월 14일 전 세계 59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15위로 평가되었고 이는 전년도 10위에 비하여 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인구 2천만 명 이상 아시아 6개 국가 및 지역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것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가 4위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6위), 태국(10위)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물론 중국 내 일개 지역인 저장성보다도 낮은 15위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2002년도 10위에서 5단계 하락한 15위를 기록함으로써 인구 2천만 명 이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큰 국가가 되었다. 주된 요인은 높은 생계비 지수(28위), 낮은 수출입 등가 교역 지수(26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입법관련 차별 (30위), 노사관계의 적대적인 정도(30위)와 같은 경제외적인 국가경쟁력 지원 요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각 부문별 순위를 살펴볼 때, 한국은 경제지표, 국가재정구조, IT 인프라 등과 관련하여서는 최상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 노사관계 등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 4>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지역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미국	1	1	1	1	1
호주	3	3	3	3	2
캐나다	2	2	2	2	3
말레이시아	9	9	10	6	4
독일	4	4	4	4	5
대만	5	6	5	7	6
영국	6	5	6	5	7
프랑스	8	7	8	9	8
스페인	7	8	7	8	9
태국	16	13	14	13	10
일본	10	10	9	11	11
중국	11	11	12	12	12
상파울로(브라질)*	-	-	-	-	13
저장성(중국)*	-	-	-	-	14
한국	21	12	11	10	15

	1999	2000	2001	2002	2003
콜롬비아	23	23	21	20	16
이탈리아	13	16	13	14	17
남아프리카공화국	22	20	17	16	18
마하라슈트라(인도)*	-	-	-	-	19
인도	19	18	19	17	20
브라질	17	15	16	15	21
필리핀	12	17	18	18	22
루마니아	-	-	-	-	23
멕시코	14	14	15	19	24
터키	18	21	20	23	25
러시아	26	26	22	21	26
폴란드	20	19	25	22	27
인도네시아	25	24	24	25	28
아르헨티나	15	22	23	26	29
베네수엘라	24	25	26	24	30

주 1 : * 로 표시된 곳은 ()안에 명기된 국가 내 지역임 (2003년부터 포함)

2 : 국가별 각 년도 순위는 2003년부터 변경된 집단 구분에 의해 재조정된 것임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2003.5.14.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기업경영효율 부문의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경쟁력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사관계 안정, 외국인 투자유도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정책과제의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지역의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

	종합순위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02	'03	비고	'02	'03	비고	'02	'03	비고	'02	'03	비고	'02	'03	비고
미국	1	1	-	1	1	-	1	2	↓1	1	1	-	1	1	-
호주	3	2	↑1	10	10	-	2	1	↑1	3	2	↑1	3	2	↑1
캐나다	2	3	↓1	5	6	↓1	3	4	↓1	2	3	↓1	2	3	↓1
말레이시아	6	4	↑2	8	8	-	4	3	↑1	7	5	↑2	10	9	↑1
독일	4	5	↓1	3	3	-	8	12	↓4	6	6	-	4	4	-
대만	7	6	↑1	17	11	↑6	9	6	↑3	4	4	-	7	7	-
영국	5	7	↓2	2	5	↓3	5	8	↓3	5	7	↓2	8	8	-

	종합순위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02	'03	비교	'02	'03	비교	'02	'03	비교	'02	'03	비교	'02	'03	비교
프랑스	9	8	↑1	6	4	↑2	19	14	↑5	13	11	↑2	5	6	↓1
스페인	8	9	↓1	7	9	↓2	6	7	↓1	8	12	↓4	11	10	↑1
태국	13	10	↑3	9	7	↑2	7	5	↑2	14	9	↑5	17	16	↑1
일본	11	11	-	15	14	↑1	17	17	-	16	21	↓5	6	5	↑1
중국	12	12	-	4	2	↑2	10	9	↑1	18	24	↓6	14	17	↓3
상파울로(브라질)*	-	13	-	-	22	-	-	13	-	-	8	-	-	13	-
저장성(중국)*	-	14	-	-	13	-	-	10	-	-	15	-	-	23	-
한국	10	15	↓5	11	18	↓7	11	18	↓7	10	20	↓10	9	11	↓2
콜롬비아	20	16	↑4	20	21	↓1	20	11	↑9	15	18	↓3	15	14	↑1
이탈리아	14	17	↓3	13	15	↓2	18	23	↓5	12	17	↓5	12	12	-
남아프리카공화국	16	18	↓2	21	23	↓2	12	15	↓3	11	10	↑1	20	21	↓1
마하라슈트라(인도)*	-	19	-	-	16	-	-	20	-	-	14	-	-	25	-
인도	17	20	↓3	12	12	-	16	19	↓3	17	19	↓2	25	27	↓2
브라질	15	21	↓6	16	20	↓4	14	22	↓8	9	13	↓4	16	19	↓3
필리핀	18	22	↓4	14	19	↓5	15	21	↓6	19	23	↓4	22	26	↓4
루마니아	-	23	-	-	26	-	-	24	-	-	22	-	-	20	-
멕시코	19	24	↓5	18	17	↑1	13	16	↓3	20	25	↓5	23	29	↓6
터키	23	25	↓2	26	28	↓2	22	26	↓4	22	16	↑6	19	15	↑4
러시아	21	26	↓5	22	25	↓3	21	25	↓4	21	27	↓6	13	18	↓5
폴란드	22	27	↓5	23	27	↓4	24	28	↓4	24	26	↓2	21	24	↓3
인도네시아	25	28	↓3	19	24	↓5	23	27	↓4	26	30	↓4	26	30	↓4
아르헨티나	26	29	↓3	25	29	↓4	26	29	↓3	25	29	↓4	18	22	↓4
베네수엘라	24	30	↓6	24	30	↓6	25	30	↓5	23	28	↓5	24	28	↓4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2003.5.14.

경제운영성과 부문을 보면, 현재의 경제지표면에서는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최하 수준을 나타내어 장기적인 기업성장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정부행정효율 부문을 볼 때, 전반적인 국가 재정구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본 및 재산관련 조세부담과 외국 기업에 대한 입법 관련 차별 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기업경영효율 부문을 보면,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노사관계가 가장 적대적인 나라로 평가되었다. 발전인프라 구축 부문을 볼 때, IT 관련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교육 관련 인프라는 평가 대상국가 및 지역 중에서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가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도 구조조정의 미흡 등으로 28위에 불과하다. 한편,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의 외국인 생활환경 수준은 7위였는데,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말레이시아, 3위는 일본, 4위는 홍콩의 순으로 도시별로도 서울은 10위로 아시아 주요 도시 중 바닥권에 머물렀다.

<표 6>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지역의 세부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경제운영성과(18위)		정부행정효율(18위)		기업경영효율(20위)		발전인프라구축(11위)	
1.1 국내 경제활력	9위	2.1 재정 구조	1위	3.1 생산성	15위	4.1 경제 인프라	16위
1.2 국제무역	10위	2.2 재정 정책	15위	3.2 노동 시장	19위	4.2 기술 인프라	10위
1.3 해외투자	30위	2.3 경제 제도기구	14위	3.3 자금 시장효율	14위	4.3 과학 인프라	10위
1.4 고용 및 실업	4위	2.4 기업 관련입법	24위	3.4 기업 경영관행	25위	4.4 보건 및 환경	12위
1.5 물가 및 생계비	26위	2.5 사회 정서	28위	3.5 태도 및 기치관	14위	4.5 교육 경영	18위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5.14.

<표 7> IMD 선정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점과 약점 20가지

강 점				약 점			
항목	지표	값	순위	항목	지표	값	순위
4.3	민간 연구개발 인력 천 명당 특허 획득 건수	263.4건	2위	1.5	뉴욕시 대비 생필품 기준 도시 생계비 지수	95.8	28위
3.3	1인당 신용카드 발급 수	1.9개	3위	1.2	수출입 등가 교역 지수	61.1	26위
4.3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지출	2.9%	2위	2.2	자본 및 재산관련 조세액, GDP 대비	3.1%	27위
3.3	주가지수 증가율	32.2%	2위	4.5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32.1명	21위
2.1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지 흑자 비중	3.9%	2위	1.3	GDP대비 외국인 투자 유입 비중	0.75	24위
4.2	인구 천명 당 인터넷 이용자 수	557.3명	2위	2.2	GDP대비 간접 조세수입	10.8%	22위
4.1	유아, 노령인구 부양비율	39.7%	2위	4.2	인구 백만 명 당 보안 서버 수	5.14	10위
4.5	25~34세 인구 대학 진학률	40.0%	3위	4.5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1.2명	24위

강 점				약 점			
항목	지표	값	순위	항목	지표	값	순위
2.1	GDP대비 중앙정부 국내부채 비중	0.5%	2위	1.3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55억 달러	12위
2.3	은행간 실질 단기이자율	0.26%	2위	1.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	32억 달러	21위
4.5	적령 청소년 고등학교 등록비율	94.4%	5위	1.3	해외직접투자액	62억 달러	13위
4.2	인구 천명 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278.9명	5위	1.3	외국인 주식시장 직접 투자 유치액	472.3억 달러	18위
1.4	실업률	3.10%	3위	4.5	GDP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비중	3.6%	21위
3.2*	상급경영진의 해외 근무 경험	6.37	1위	2.4*	외국기업에 대한 입법 관련 차별정도	5.88	30위
4.2*	인터넷 접근 용이성 정도	8.82	3위	3.2*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정도	3.55	30위
3.5*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6.41	3위	3.5*	외국 아이디어에 대한 문화적 수용 정도	5.27	30위
3.5*	세계화가 경제에 주는 이익에 대한 기대 정도	6.00	5위	3.4*	법인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지원 정도	3.96	29위
4.2*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적절성	7.76	7위	2.5*	(인종, 성 등) 사회적 차별정도	4.37	28위
4.4*	알코올과 약물의 작업현장 남용방지	7.00	7위	4.5*	대학교육의 경제적 경쟁력 지원정도	3.55	28위
4.3*	기초과학연구의 경제개발 기여도	6.20	8위	3.3*	주주의 권리와 책임이 명백한 정도	4.57	28위

주 : * 로 표시된 것은 설문조사로 평가된 항목을 의미함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2003.5.14.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근거로 살펴볼 때, 현 단계 한국의 국가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법규 개정 및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간 신뢰회복에 근거한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4년도 경제자 유지수'에서 한국은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상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평점 2.69로 홍콩 1.34와 싱가포르 1.61은 물론, 대만 2.43과 일본 2.53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도 평점이 2.35를 기록한 이후 2002년 들어 2.49, 2003년 2.75로 나빠진 데 이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2004년 2.69에 머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통상정책 4.0, 정부의 재정부담 3.4, 규제 3.0, 금융 3.0, 암시장 3.0 부문에서 좋지 않은 평점을 받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표 8> 경제자유지수 순위

순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1	홍콩	1.4	1.29	1.39	1.44	1.34
2	싱가포르	1.59	1.66	1.69	1.61	1.61
3	뉴질랜드	1.75	1.71	1.68	1.68	1.70
4	룩셈부르크	1.84	1.79	1.88	1.68	1.71
5	아일랜드	1.81	1.60	1.73	1.73	1.74
6	에스토니아	2.19	1.89	1.73	1.68	1.76
7	영국	1.85	1.78	1.83	1.88	1.79
8	덴마크	2.29	2.10	1.79	1.71	1.80
9	스위스	1.91	1.89	1.80	1.88	1.84
10	미국	1.88	1.79	1.84	1.86	1.85
34	대만	1.98	2.18	2.38	2.29	2.43
38	일본	2.16	2.04	2.44	2.36	2.53
46	한국	2.50	2.35	2.49	2.75	2.69

주 : 평점기준임

자료 : 미국 헤리티지 재단, 2004.1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들어 133개 국가 중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4.3을 기록해 50위로 전년비 10단계 하락하였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4.3을 기록하여 대만 5.7(30위)과 말레이시아 5.2 (37위)와 비교할 때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였다.

<표 9>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이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순 위	50	48	42	40	50
지 수	3.8	4.0	4.2	4.5	4.3
총 조사대상국	99	90	91	102	133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2003.10

Ⅲ 부문별 ‘세계 100대’ 현황

2003년 포춘지의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세계 100대 기업부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46위로 세계 100대 이내에 진입하였다. 포춘지는 매출과 수익, 시장가치, 자산규모를 종합하여 세계 2천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003년 4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한 것이다.

2003년 인터브랜드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결과 108억 달러로 세계 25위를

기록하였다.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결과 108억 달러로 세계 25위를 기록하였는데, 2002년 83억달러로 34위, 2000년 52억 달러로 세계 43위에 비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위안에도 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위를 차지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705억 달러)에 비하여 삼성의 가치(108억 달러)는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포브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0대 부자가 한 명도없는 실정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28억 달러로 세계 123위이고,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22억 달러로 세계 177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에, 홍콩의 리카싱 회장은 78억 달러로 세계 28위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의 노부타다 사지 회장은 71억달러 세계 37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 수치는 개선된 것을 의미하는데, 2002년에는 이건희 회장이 25억 달러로 세계 157위를 기록하였으며,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19억달러를 나타내어 세계 225위이었다.

2003년 영국의 The Bank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에 '세계 100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국내에서 유일하다. 국내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세계 100대 은행'에 유일하게 진입해 있는데, 한국의 금융의 낙후성을 대변해 주는 결과이다.

<표 10> 국내은행 순위 변화

(단위 : 억 달러)

2001년 말					2002년 말				
순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순위		은행명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기본자본	총자산			
68	70	국민	62.0	1,194.5	60	73	국민	77.4	1,445.8
121	102	농협	28.1	695.9	114	92	농협	33.7	881.3

자료 : The Banker, 각 호

2003년 들어 재거트지에 의해 신라호텔이 페닌슐라 홍콩, 오리엔탈 방콕, 포시즌 밀라노 등 세계적인 유명 호텔들과 함께 '올해 100대 호텔'로 선정되었다. 뉴욕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인 재거트(Zagat)에 따르면, '올해의 100대 호텔'로 국내 호텔로는 유일하게 신라호텔이 선정되었는데 객실, 서비스 등의 4가지 분야의 평가에서 국내 호텔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외국 브랜드사로는 릿츠칼튼 호텔이 신라호텔에 이어 유일하게 세계 100대 호텔에 들었다. 신라호텔은 미국 Conde Nast Traveler지에 의하여 2003년 Gold list에서는 77위로 선정되었다. 세계 유력 금융잡지인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가 주관하는 '2002년 세계 100대 호텔'에는 하얏트 호텔과 함께 웨스틴 조선호텔이 92위로 세계 100위 안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들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도 페닌슐라 홍콩과 오리엔탈 방콕 등 세계 일류 호텔들에 비교할 때에는 아

직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 들어 비즈니스 트래블러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세계최고공항 중에서 3위에 선정되었다. 2002년 인사이트 미디어(Insight Media)사에 의하여 인천공항은 우수서비스공항의 아시아태평양부문에서 2위에 선정되었다. 2003년 들어서는 영국의 인사이트 미디어(Insight Media)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우수 서비스 공항에 선정되었다. 2003년 5월에는 New York Times지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아시아지역에서도 공항이용료 측면에서는 간사이공항에 뒤쳐져 있으며 여객기 이착륙료 측면에서는 나리타공항과 큰 차이로 뒤떨어져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취항 항공사 측면에서는 나리타와 간사이, 홍콩, 창이 등 상당수의 아시아지역 공항에 비하여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고 환승률에서도 홍콩 및 창이공항에 많이 뒤쳐져 있다.

2003년 세계 대학 평가위원회의 교육력 순위에 대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대학인 서울대는 258위에 선정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243위 동경대와 251위 북경대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들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BA 순위에서 세계 100대 대학교에 한국은 한 대학도 선정되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로 잘 알려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I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권에서는 세계 100대 MBA 순위에 5개대가 포함되었지만 한국은 한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에 따르면,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경영대학원은 차이나 유럽 국제 비즈니스 스쿨(CEIBS)로 65위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홍콩과학기술대 비즈니스 스쿨이 73위에 올랐으며 홍콩대가 79위, 일본 국제대 국제경영대학원이 82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 국립대도 99위에 올라 세계 100대 MBA에 진입하였다.

전세계통계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한국의 물류과업 이전까지 컨테이너 처리량기준으로 부산항은 세계 3대항만으로 기록하였다. 2003년 상반기 한국의 물류과업 이전에는 1위가 홍콩항(1,870만TEU)이고 2위는 싱가포르항(1,700만TEU), 3위는 부산항(945만TEU), 4위는 상하이항, 5위는 가요슈항이었다. 하지만, 세계 3위로 성장했던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중국에 추월 당하며 5위로 전락한 실정이다.

한국의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 국제무역 통계(PC-TAS)를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0대 상품 중에서 한국이 1등을 차지한 제품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UN의 국제무역 통계(PC-TAS)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0대 상품(수출액 기준으로 세계총액이 73억 달러 이상) 중에서 한국이 1등을 차지한 제품은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IV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003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15위로 평가돼 전년도 기준으로 5단계 하락하였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4년도 경제자 유지수'에서 한국은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들어 133개 국가 중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4.3을 기록해 50위로 전년비 10단계 하락하였다.

2003년 포춘지의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세계 100대 기업부문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46위로 세계 100대 이내에 진입하였다.

2003년 인터브랜드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결과 108억 달러로 세계 25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직 20위안에도 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위를 차지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705억 달러)에 비하여 삼성의 가치(108억 달러)는 7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포브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0대 부자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2003년 영국의 The Bank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중에 '세계 100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국내에서 유일하다. 국내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세계 100대 은행'에 유일하게 진입해 있는데, 한국의 금융의 낙후성을 대변해 주는 결과이다.

2003년 들어 재거트지에 의해 신라호텔이 페닌슐라 홍콩, 오리엔탈 방콕, 포시즌 밀라노 등 세계적인 유명 호텔들과 함께 '올해 100대 호텔'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도 페닌슐라 홍콩과 오리엔탈 방콕 등 세계 일류 호텔들에 비교할 때에는 아직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 들어 비즈니스 트래블러지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세계최고공항 중 에서 3위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아시아지역에서도 공항이용료 측면에서는 간사이 공항에 뒤쳐져 있으며 여객기 이착륙료 측면에서는 나리타공항과 큰 차이로 뒤떨어져 있다. 또한, 인천공항은 취항 항공사 측면에서는 나리타와 간사이, 홍콩, 창이 등 상당수의 아시아지역 공항에 비하여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고 환승률에서도 홍콩 및 창이공항에 많이 뒤쳐져 있다.

2003년 세계 대학 평가위원회의 교육력 순위에 대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대학인 서울대는 258위에 선정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243위 동경대와 251위 북경대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들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BA 순위에서 세계 100대 대학교에 한국은 한 대학도 선정되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로 잘 알려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I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권에서는 세계 100대 MBA 순위에 5개대가 포함되었지만 한국은 한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세계통계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한국의 물류과업 이전까지 컨테이너 처리량기준으로 부산항은 세계 3대항만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세계 3위로 성장했던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중국에 추월 당하며 5위로 전락한 실정이다.

한국의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 국제무역 통계(PC-TAS)를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00대 상품 중에서 한국이 1등을 차지한 제품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 일류 달성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세계 12위인 경제규모에 비하여 기업, 브랜드, 은행, 호텔, 대학 등 경제 및 사회 각 부문에서 세계일류는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이에 걸 맞는 정부의 역할 등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성장엔진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자유로운 투자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도약과 세계일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주체로서의 개인 창조력을 높여야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사회 각 부문의 ‘세계 일류’가 가능할 것이다.